

주요개념 : 아동, 인터넷, 중독, 부모, 애착

초등학교 5, 6학년생의 인터넷 중독과 부모-자녀 애착*

박진영** · 김남혜** · 김영신** · 이소혜** · 정미란** · 정수경** · 황유미** · 방경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국민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72.2%이며 그 중에서도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로 거의 모든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2008). 그러나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고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아동과 청소년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는 초등학교생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Shin & Jo, 2003). 일주일 동안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10대는 3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2008), Brenner(1997)는 인터넷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

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이용을 통해 만족과 편안함을 느끼는 '의존성', 그 의존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내성 현상',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나는 '금단 현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 학업 지장, 일상생활 부적응, 감정조절 능력감소, 대인관계 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Han, 2001).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나 학년별 인터넷 이용 시간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비해 이용 시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Lee, Lee, Kim, & Oh, 2000),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터넷 중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는 인터넷 이용 시간, 부모 관계 만족도, 가족 대화 시간 등을 들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 이로부터 파생되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

* 본 논문은 2007년 2월 아주대학교 학사학위 논문을 수정한 것임.

**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졸업생

***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교신저자 방경숙 : ksbang@ajou.ac.kr

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선택하여 과도하게 몰입할 수 있다고 한다(Lee & Park, 2004). 또한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시간적 부족이나 애정적 결핍은 아동이 인터넷에 빠져들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영유아기 부모와의 애착은 학령전기 아동에게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하며(Goodvin, Meyer, Thompson, & Hayes, 2008), 청소년들도 부모와의 애착,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Song, Thompson, & Ferrer, 2009). Young(1998)도 가족 내에서 사이버 중독증 환자로 진단되는 대다수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교생이지만 실제 문제는 가족 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가족과 사회의 냉담한 자세로 초등학교생이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인터넷 공간에서 그들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인터넷 공간에 빠져들게 되어 인터넷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 관련된 요인을 다룬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연구 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정도 및 중독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및 부모-자녀 애착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의 실태를 조사하고 부모-자녀 애착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인터넷 중독과 부모-자녀 애착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이 지나쳐서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직업적, 사회 적응적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Park, Koh, & Kim, 2009).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한국정보문화진흥원(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2002)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부모자녀 애착

애착은 Bowlby에 의해 처음 정의된 용어로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뜻한다(Armsden & Greenberg, 1987).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의 개정본(IPPA-R)을 Oak(1998)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비교하고 인터넷 중독 정도와 부모-자녀 애착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 및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 수원, 울산, 광주 4개 지역별로 1개씩의 초등학교를 편의추출한 후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각 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총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원이 정규 수업시간동안 직접 배부한 후 수거하였다. 이중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303명(91.8%)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였다.

3. 연구 도구

1) 인터넷 중독 척도

인터넷 중독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2002)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K-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하위영역은 일상생활 장애, 현실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내성,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의 7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의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총점이 97점 이상은 중독성향이 높아 전문가의 도움을 요하는 고 위험사용자군, 80-96점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그리고 79점 이하의 일반 사용자군의 3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92이

었다.

2) 부모-자녀 애착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10-20세를 대상으로 개발한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Oak(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초등학생이 이해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애착, 또래애착 척도로 구성된 원 척도를 수정하여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IPPA-R은 총 25문항으로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와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부모애착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아버지 애착이 .82, 어머니 애착이 .80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정도와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터넷 이용 특성에 따른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인터넷 중독 정도와 부모-자녀 애착 정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초등학교 5학년이 46.5%, 6학년이 53.5%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51.7%, 여학생은 48.3%로 비슷하였다. 응답자의 답변에 의한 성적수준별 분포는 성적이 '상'인 학생이 15.4%, '중'인 학생이 68.9%, '하'인 학생이 15.7%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하와 대학교 졸업이상인 학생이 각각 50.0%씩이었으며,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53.8%로 좀 더 많았고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67.0%였다. 친한 친구의 수는 '3명 이상'이 9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형제가 있는 학생은 272명으로 전체의 89.8%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03)

Variables	Categories	n(%)
Grade	Fifth	141(46.5)
	Sixth	162(53.5)
Gender	Boy	156(51.7)
	Girl	146(48.3)
Academic level	High	46(15.4)
	Middle	206(68.9)
	Low	47(15.7)
Intimate friend	<2	21(7.0)
	>3	280(93.0)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37(50.0)
	>College	137(50.0)
Mother's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48(53.8)
	>College	127(46.2)
Mother's job	Has	201(67.0)
	None	99(33.0)
Sibling	Has	272(89.8)
	None	31(10.2)

(Excluded no response)

대상자 중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291명으로 전체의 96.0%였고, 컴퓨터 설치 장소는 자기

방에 있는 경우가 29.1%, 거실에 있는 경우가 22.3%였고, 자기 방과 거실 이외의 장소에 있는 학생은 전체의 48.6%였다. 주요 인터넷 이용 장소는 집인 경우가 86.8%였고, PC방이나 기타는 각각 6.6%였다. 응답자의 주당 인터넷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9명(6.3%)이었고, '주 1-2회'가 110명(36.4%), '주 3-4회'가 73명(24.2%), '주 5회 이상'이 100명(33.3%)이었다. 일회 인터넷 사용 시간은 '1시간 미만'이 135명(45.0%), '1-3 시간' 147명(49.0%), '3시간 초과'라고 응답한 학생이 19명(6.0%)이었다<Table 2>.

<Table 2> Internet use related characteristics (N=303)

Variables	Categories	n(%)
Computer	Has	291(96.0)
	None	12(4.0)
Location of computer	Child's room	85(29.1)
	Living room	65(22.3)
	Other room	142(48.6)
Primary location of internet use	Home	262(86.8)
	Commercial PC room	20(6.6)
	Others	20(6.6)
Frequency of internet use (n/week)	None	19(6.3)
	1-2	110(36.4)
	3-4	73(24.2)
	>5	100(33.3)
Period per one internet use (hour)	<1	135(45.0)
	1-3	147(49.0)
	>3	19(6.0)
Primary purpose for internet use	Studying	117(39.0)
	Game and entertainment	151(50.3)
	Making friends	29(9.7)
	Others	3(1.0)

2.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

<Table 3>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N=303)

Internet addiction	n	%	Minimum	Maximum	Mean(SD)
High risk group	8	2.7	101.00	113.00	104.13(4.26)
Potential risk group	16	5.3	80.00	95.00	86.00(4.44)
General use group	279	92.0	40.00	79.00	54.95(10.30)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고위험군이 8명(2.7%),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16명(5.3%), 일반적인 사용자군이 279명(92.1%)이었다. 또한 이들의 평균 인터넷 중독 점수는 고위험 사용자군 104.13점,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86.40점, 일반 사용자군 54.95점이었다<Table 3>.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Table 4>와 같다. 지역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를 살펴보면, 울산지역이 수원, 서울, 광주의 학생보다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F=3.90, p<.01$). 또한 학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6학년이 5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27, p<.05$),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57, p<.001$). 그러나 성적수준, 어머니·아버지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유·무, 친한 친구의 수, 형제·자매의 유·무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4. 인터넷 중독과 부모-자녀 애착과의 관계

아동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아버지-자녀 애착($r=-1.22, p=.040$), 어머니-자녀 애착($r=-1.54, p=.009$)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자녀 애착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부모-자녀 애착관계의 하부항목에서 아버지와의 애착 중 소외감($r=-.192, p<.01$), 어머니와의 애착 중 의사소통($r=-.137, p<.05$) 및 소외감($r=.212,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Table 4>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0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	p	Scheffe
Residing region	Suwon(a)	100	57.30(13.05)	3.90	.009	a,b,d<c
	Seoul(b)	62	54.24(11.99)			
	Ulsan(c)	67	62.57(16.91)			
	Kwangjoo(d)	74	57.51(14.45)			
Grade	Fifth	141	55.90(12.97)	-2.27	.024	
	Sixth	162	59.62(15.26)			
Gender	Boy	156	62.16(14.71)	5.57	.001	
	Girl	142	53.45(12.46)			
Academic level	High	46	55.52(12.65)	0.50	.169	
	Middle	206	58.94(15.07)			
	Low	47	55.60(12.21)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37	58.50(15.94)	0.03	.977	
	>College	137	58.45(13.31)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48	58.09(15.14)	-0.48	.632	
	>College	127	58.94(14.06)			
Mother's job	None	99	56.13(13.93)	-1.51	.132	
	Has	201	58.80(14.56)			
Intimate friend	<2	21	53.67(16.58)	-1.42	.157	
	>3	280	58.27(14.17)			
Sibling	Has	272	58.11(14.53)	0.78	.439	
	None	31	56.00(12.52)			

<Table 5> Correlation of internet addiction and parent-child attachment

Variables	Internet addiction	
	Father	Mother
	r(p)	r(p)
Attachment		
Communication	-.108(.064)	-.137(.019)
Trust	-.024(.681)	-.046(.437)
Isolation feeling	-.192(.001)	-.212(.001)
Total	-.122(.040)	-.154(.009)

IV.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5·6학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과 부모-자녀 애착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보면 고 위험 사용자군이 2.7%,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5.3%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Jo와 Shin(2004) 연구에서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Kim(2007)의 연구에서도 고위험군은 2.4%로 유사하였으나 잠재적 위험군은 19.7%로 본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산의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Son, Yang, Cho와 Lee(2007)의 연구에서 각각 6.3%, 22.5%로 나타난 것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잠재적 위험군의 평균점수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더 높아 전반적으로 문제가 적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보다 더 대표성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ee 등(2000)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보다 초등학생들의 중독률이 더 높게 나타나 갈수록 컴퓨터를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고위험 및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의 학생들이 일반사용자군의 학생들보다 학업 곤란과 심리적 부적응을 더 경험

한다는 사실(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2002)은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의 증가 추세로 인해 심각한 학교부적응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격려하고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간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지역에 따른 인터넷 중독정도를 살펴본 결과 울산지역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3.90, p=.009), 수원, 서울, 광주의 학생보다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2005)이 만 9세에서 39세까지의 전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인터넷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광주, 호남지역이 5.3%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 부산, 대구, 울산, 영남이 3.8%의 순으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와 대상자의 연령층이 다르므로 지역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 대상이 지역별로 1개 학교씩만을 편의표출한 것으로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학년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6학년이 5학년에 비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Jo와 Shin(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6학년은 5학년에 비해 인터넷에 노출된 기간이 길고 그에 따라 중독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초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이용 시간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Lee, Lee, Kim, & Oh, 2000), 이는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원수업 시간이 적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에 빠지기 전에 적절한 지도와 중독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Moon, Koo, & Park, 2005). 이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를 메타분석한 Shaw와 Black(2008)의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이 20-30대에서 시작된다는 결과보다 매우 빠른 연령으로 인터넷에의 접근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Kim과 Ryu(2003)나 Oh(2004b)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유가 여학생에 비해 정보검색보다는 중독성향이 강한 게임과 오락 활동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청소년에서도 인터넷 사용 목적이 온라인 게임과 인터넷 카페 이용이 주를 이루는 남학생에서 인터넷 중독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Siomos, Dafouli, Braimiotis, Mouzas, & Angelopoulos, 2008). 학령기 후기 아동은 같은 성별의 아동으로 집단이 구성되며 놀이도 공유하게 되므로 이러한 발달 특성과 관심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중독경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Kim과 Ryu(2003), Kim과 Chong(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광범위하게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계층에 관계없이 인터넷 이용 빈도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경향은 학업성적 수준

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Kim, Jeon과 Ham(2005)은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이 중독수준에 이룰수록 학교생활 적응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00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이 학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학업성적이 떨어진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과목별 성적의 순위가 중고등학교에서와 같이 상대적 순위를 매기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주관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터넷 이용 동기를 살펴보면 게임이나 오락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과 학업에 도움이 되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 간에 비율이 비슷하게 나와 과거에 비해 인터넷을 학업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적수준과 인터넷 중독 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인터넷 중독과 부모-자녀 애착은 음적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하부요소와 부모-자녀 애착관계 하부요소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모-자녀 애착관계의 하부요소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 중 소외만이 상관계수 0.2 이상으로 의사소통이나 신뢰감은 인터넷 중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Jo와 Shin(2004)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적을수록 높은 인터넷 중독률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와 대상 연령이 같은 Kim 등(2007)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과 모애착, 부애착이 각각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Kim과 Kim(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감독이 유의한 예측 변수로서 인터넷 중독의 20.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상에서는 친구를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채팅이나 전자 메일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 몰입하게 된다. Kim(2007)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은 부모의 애정 요인과 가장 연관성이 높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부모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200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서울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Kim과 Cho(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력, 가정폭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와 인터넷 중독은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Liu & Kuo, 2007),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높고 가족기능이 낮은 것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있었다(Yen, Yen, Chen, Chen, & Ko, 2007).

본 연구를 통해 아동에게 있어 가정이라는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자녀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Oh(2004a)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교육적 요구는 높은 반면 인터넷 사용에 따른 기술적 부분을 제외한 인터넷 중독예방이나 바람직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증가된 인터넷의 보급률과 아울러 올바른 인터

넷 사용에 관한 교육이 좀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을 강화하며, 보건교사와의 체계적인 연계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는 초등학생의 5, 6학년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부모-자녀 애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가정과 학교의 협조 하에 인터넷 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제안하는 바이다. 추후로 초등학생 인터넷 실태 분석은 물론 중독을 초래하는 환경과 원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이 더 수행되어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현황을 알아보고 인터넷 중독과 부모-자녀 애착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서울, 수원, 울산, 광주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3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술적 비교조사 및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도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Oak(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고위험군이 2.7%,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5.3%, 일반적 사용자군이 92.0%였다.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5학년보다 6학년($t=2.27, p=.024$),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t=5.57, p<.001$) 인터넷 중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3.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은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r=-.122$, $p=.040$), 어머니와의 애착관계($r=-.154$, $p=.009$)와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 부모-자녀 애착관계의 하부영역(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과 인터넷 중독의 상관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애착 중 소외($r=-.192$, $p=.001$), 어머니와의 애착 중 의사소통($r=-.137$, $p=.019$), 소외($r=-.212$, $p<.001$)와 유의한 음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인터넷 중독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자녀간의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 Rep*, 80(3), 879-882.
- Cho, C. B. (2001). *A study on a relation between the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 and family and school background-Focusing on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reg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Goodvin, r., Meyer, S., Thompson, R. A., & Hayes, R. (2008). Self-understanding in early childhood: association with child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negative effect.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0(4), 433-450.
- Han, B. H. (2001). *A study on psychosocial dysfunction of adolescents with internet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Jo, M. H., & Shin, K. S. (2004). Education using computer: Th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elementary students' internet addiction.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7(5), 45-56.
- Kim, E. J. (2007). *Correlations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parents' child rear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Suwon.
- Kim, H. Y., Jeon, M. S., & Ham, M. Y. (2005). The impact of internet addiction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4), 441-456.
- Kim, J. H., & Ryu, H. S. (2003). Relationships among school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2), 198-205.
- Kim, K. S., & Kim, K. (2009). Parent related factors in internet game addi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 Child Health Nurs*, 15(1), 24-33.
- Kim, Y. H., & Chong, Y. S. (2005). Parent-child communication, peer relationship and internet

- addiction in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10), 114-125.
- Kim, Y. H., Son, H. M., Yang, Y. O., Cho, Y. R., & Lee, N. Y. (2007). Relation between internet game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child attachment.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3(4), 383-389.
-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2002). *Self test for internet addiction*. www.kado.or.kr
-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2005). www.kado.or.kr
- Lee, S. H., Lee, S. Y., Kim, E. J., & Oh, S. K. (2000).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hild education*. Seoul: Samsung institute of social psychiatry.
- Lee, S. J., & Park, J. K. (2004).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educational program for game addic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Lee, S. J., Hong, S. H., & Park, J. K. (2005). The study on the personal and social influence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4), 1179-1197.
- Liu, C. Y., & Kuo, F. Y. (2007). A study of internet addiction through the lens of the interpersonal theory. *Cyberpsychol Behav*, 10(6), 799-804.
- Moon, Y. I., Koo, H. Y., & Park, H. R. (2005). Scope of internet addiction and predictors of addiction in Korean children in early elementary school.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3), 263-272.
-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2008). www.nida.or.kr
- Oak, J.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Oh, W. O. (2004a). Educational needs for internet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of Korea.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1), 48-58.
- Oh, W. O. (2004b). Computer game addiction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0(3), 282-290.
- Park, H. S., Koh, Y. S., & Kim, J. M. (2009). *2008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Seoul: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 Park, S. K., Kim, J. Y., & Cho, C. B. (2008). Prevalence of internet addiction and correlations with family factors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Adolescence*, 43(172), 895-909.
- Shaw, W., & Black, D. W. (2008). Internet addiction: definition, assessment, epidemiology and clinical management. *CNS Drugs*, 22(5), 353-365.
- Shin, K. S., & Jo, M. H. (2003).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5th and 6th graders'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7(3), 319-329.
- Siomos, K. E., Dafouli, E. V., Braimiotis, D. A., Mouzas, O. D., & Angelopoulos, N. V. (2008). Internet addiction among Greek adolescent student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6), 653-657.

- Song, H., Thompson, R. A., & Ferrer, E. (2009). Attachment and self-evaluation in Chinese adolescents: Ag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t*, 32(5), 1267-1286.
- Yen, J. Y., Yen, C. F., Chen, C. C., Chen, S. H., & Ko, C. H. (2007). Family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and substance use experience in Taiwanese adolescent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0(3), 323-329.
- Young, K. 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25-28.

ABSTRACT

Key Words : Child, Internet, Addiction, Parent, Attachment

Internet Obsession and Parent–Child Attachment in 5th and 6th Grade Students

Park, Jinyoung* · Kim, Namhye* · Kim, Youngshin* · Lee, Sohye*
Jung, Miran* · Jung, Sookyung* · Hwang, Yumi* · Bang, Kyungsoo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atterns of internet usage among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tudents, and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rnet obsessive disorder and parent-child attachment.

Method: A total of 303 elementary students in Seoul, Suwon, Ulsan, and Kwangjoo a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responded to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Results:** With regard to the internet addiction, 2.7% of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s being in a high risk group, and 5.3% were classified as a potential risk group with boys at greater risk

than girls, and 6th graders showing higher internet addiction scores than 5th graders.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father-child attachment ($r=-.122$, $p=.040$), and mother-child attachment ($r=-.154$, $p=.009$). **Conclusion:** To prevent internet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moting parent-child interaction needs to be emphasized. More studies for finding affecting variables on internet addiction would be necessary, and different preventive approaches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should be introduced.

* Graduate from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